

노년기 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Old-age Families in Korea: Prospect and Policy Implications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의 가족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노년기 가족의 수직화, 단독가구의 증가, 자녀부양에 기대 저하 및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 증대, 배우자의 중요성 증대 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단독가구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며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011년 현재 노인인구는 553만 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어 65세 이후의 기대여명이 남자의 경우 17.0년, 여자는 21.5년으로 전망되고 있다¹⁾. 이러한 노인의 양적 증대와 노년기의 확대는 이와 더불어 진행되어온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에 더해져 노년기의 가족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²⁾와 2010년에 실시된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³⁾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노년기의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향후 어떠한 변화가 전망되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통계청의 2009년 생명표에 의하면 위생·영양상태의 개선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여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9년 80.5세로 18.2세 증가하였음.
- 2)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조사가 1994년(만 60세 이상 2,058명), 1998년(65세 이상 2,535명), 2004년(65세 이상 3,278명), 2008년(만 60세 이상 15,146명)에 대하여 실시되었음. 본고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자 함.
- 3)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에 46~59세 연령층 4,05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1. 노년기 가족의 수직화: “콩깍지 가족”화

급속한 저출산 현상에 따라 노년기에 가용한 가족의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실시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년기의 직계가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즉,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더불어 손자녀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1994년의 4.7명에서 1998년의 4.6명, 2004년의 4.2명, 2008년 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손자녀의 경우도 1998년의 9.1명에서 2008년 6.9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비율은 1994년의 5.8%에서 2008년의 8.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하여 이제 노인도 직계의 최고 윗세대가 아닌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즉,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서 다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 1994년과 2004년이라는 10년 사이에 그러한 가능성이 실현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92.5%에서 87.7%로 감소한 대신 4세대의 비율이 6.0%에서 9.7%로 3.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다세대가 공존하지만 한 세대의 규모는 작은 수직형 가족을 일컫는 ‘콩깍지 가족(beanpole family)’으로의 경향성은 향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에 이르는 세대의 경우 모두 많은 형제자매 속에서 성장했으나 자신들은 2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생식가족(family of orientation)과 방위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크기의 큰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평균수명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2. 단독가구의 증가

가용한 세대가 많다고 해서 이들 세대가 모두 동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구내 동거 세대수를 살펴보면 노인 한 세대만 생활하는 가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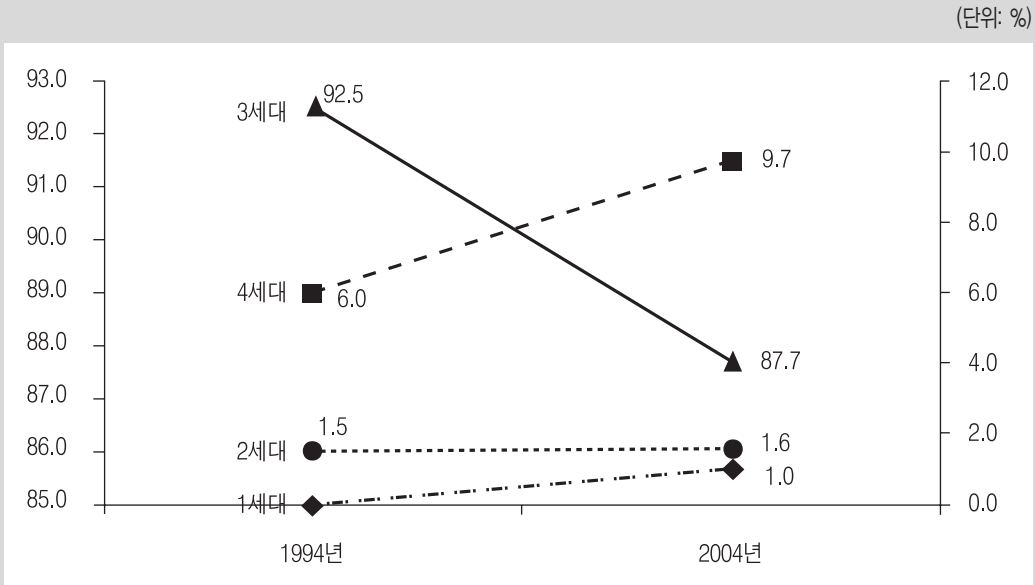
표 1. 노인의 가족규모: 평균 자녀, 부모, 손자녀 수

구분	1994년			1998년 ²⁾			2004년			2008년		
	자녀	부모 ¹⁾	손자녀	자녀	부모 ¹⁾	손자녀	자녀	부모 ¹⁾	손자녀	자녀	부모 ¹⁾	손자녀
전체	4.7명	5.8%	9.1명	4.6명	4.2명	10.0%	7.6명	4.0명	8.0%	6.9명		

주: 1)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있는 비율
 2) 부모와 손자녀에 대하여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4, 1998, 2004, 2008)

4) 통계청(2010. 12). 2009년 생명표.

그림 1. 연도별 세대구성의 변화



주: 1998년과 2008년은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분석하지 못하였음.
 자료: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4, 2004)

표 2. 중년층의 가족규모: 평균 자녀, 부모, 손자녀 수

(단위: 명)

구분	자녀수	손자녀가 있는 비율(%)	형제·자매수
55~59세	2.3	47.1	5.2
46~54세 (베이비 부머)	1.9	11.8	5.2

자료: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비율이 1994년의 42.7%에서, 1998년의 48.0%, 2004년의 57.7%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3세대가 동거하는 비율은 37.7%에서 32.9%, 24.6%로 급감하고 있다. 즉 가용한 세대의 수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세대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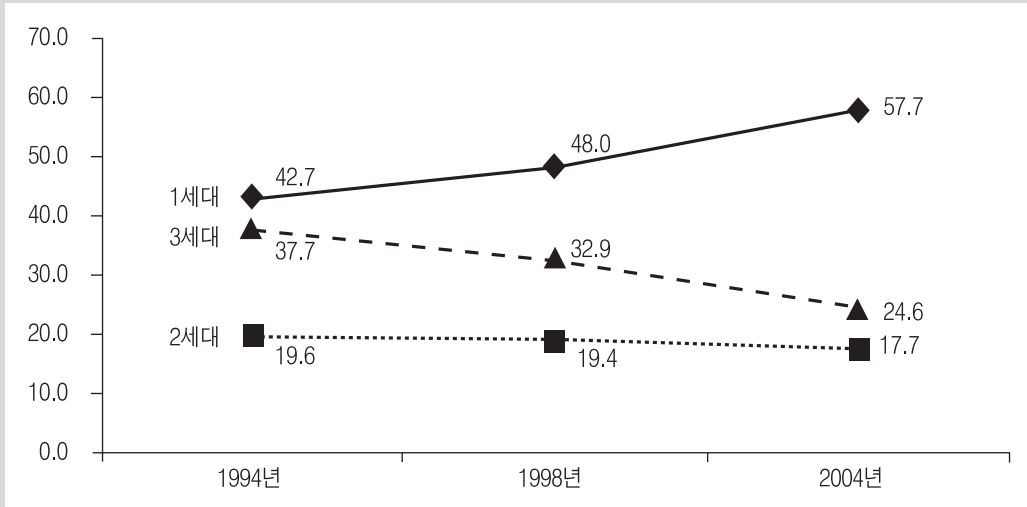
또한 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1994년의 경우 자녀동거가 54.7%였지만 2009년에는 동

비율이 38.7%로 급감하였다. 반면 노인부부 비율이 26.8%에서 35.6%로 증가하여 자녀동거가구의 수준과 비슷해졌고 독거의 비중도 13.6%에서 2009년 20.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년기의 독거가구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⁹⁾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는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가

그림 2. 연도별 동거세대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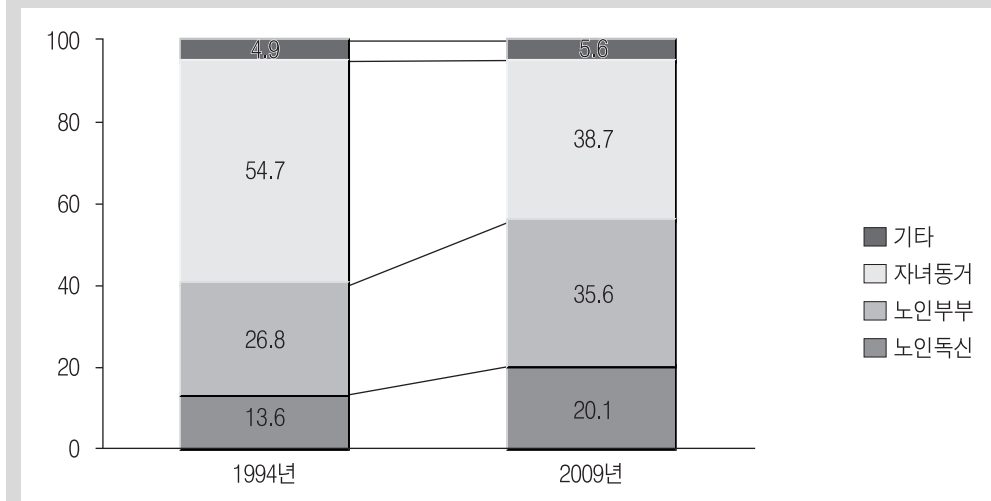
(단위: %)



주: 2008년은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분석하지 못하였음.
 자료: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4, 1998, 2004)

그림 3. 노인의 거주 형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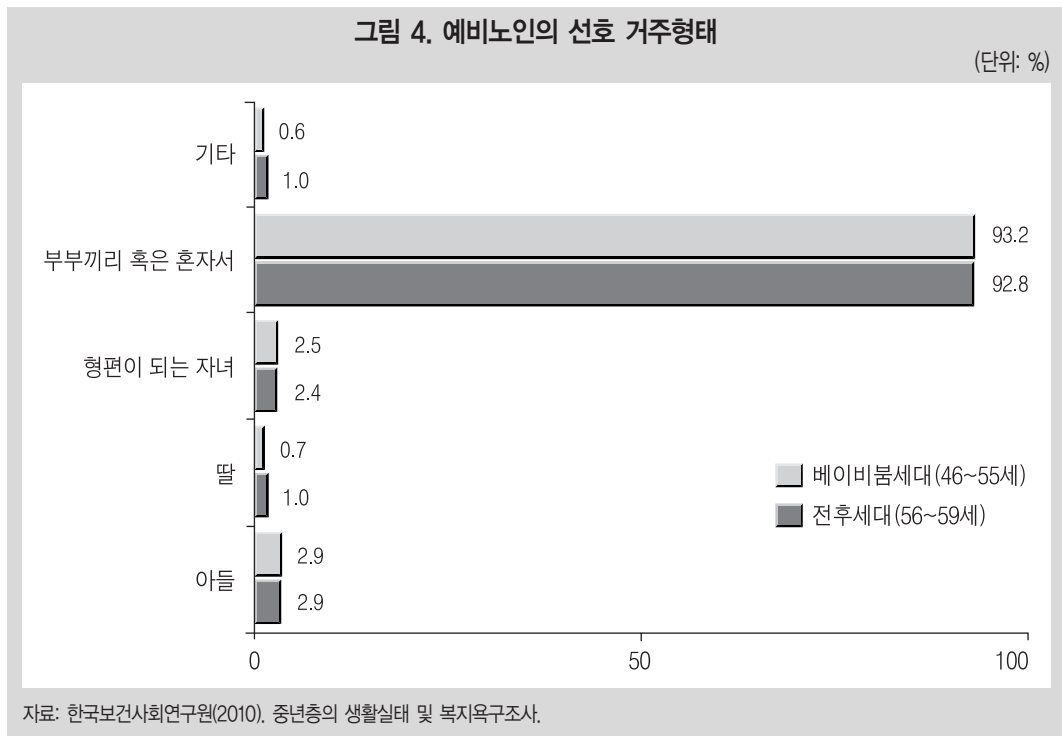
5)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에 기초함. 독거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함.

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강화시키는 것은 예비노인세대인 40~50대의 태도이다. 예비노인중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나 현재 50대 후반인 예비노인층의 절대다수가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약 6%에 불과하다. 노년기를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독거의 형태를 전환되는 유형이 노년기의 주요 거주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자녀부양 기대 저하 및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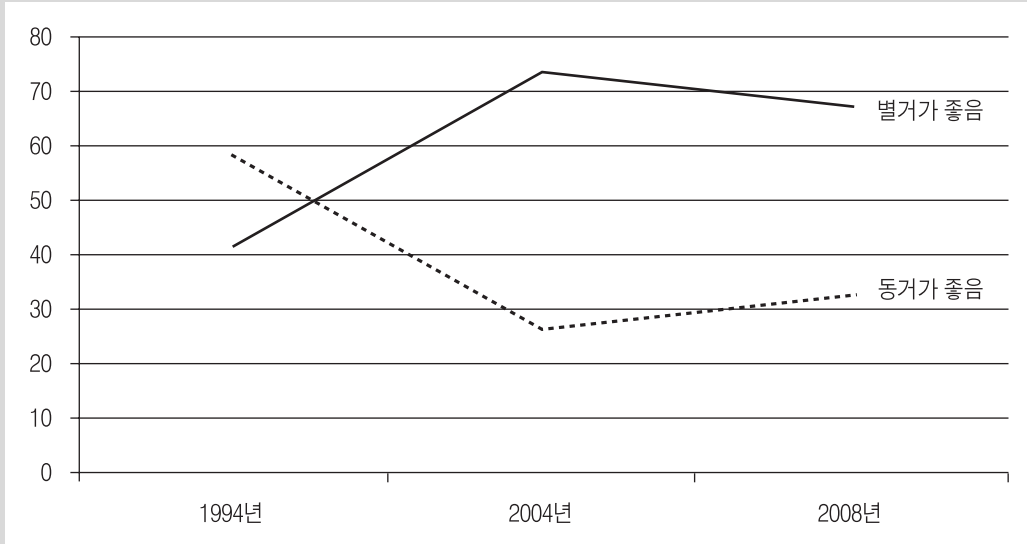
더 이상 노년기에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결혼한 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해 보면 결혼한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비노인중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동거부양 뿐만 아니라 도구적인 부양



6) 1994년 조사결과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58.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26.6%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음. 2008년에는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32.5%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이것은 1994년이나 1998년에 조사에서는 "결혼한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데 반해, 2008년에는 "노후에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 내용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그림 5. 결혼한 자녀와 노부모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4, 2004, 2008)

에 있어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어왔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부양이 필요할 경우, 자녀 부양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배우자나 공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간병 및 수발이 필요한 경우 선호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1994년 조사에서는 자녀로부터 수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노인이 6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로부터의 수발로 27.2%였

던 것에 비하여 2004년 조사에서는 배우자가 64.9%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이 자녀수발로 25.7%였다. 또한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라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응답률이 34.2%로 크게 증가하였고 자녀에게 수발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계속 25%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적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미래 노인에게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예비노인층

표 3. 중년층의 신체적 수발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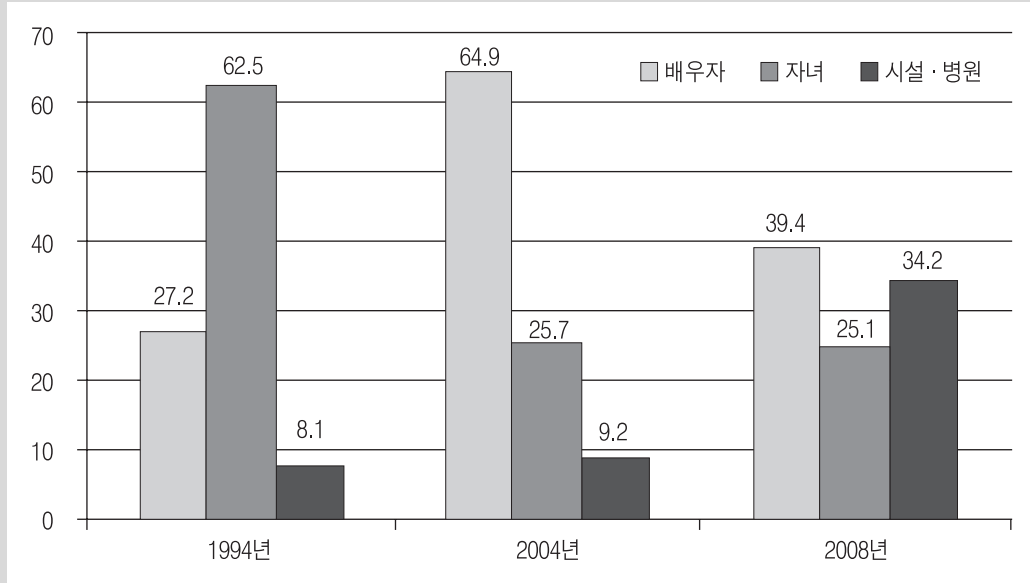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공적서비스 이용
55~59세	28.7	5.3	66.1
46~54세(베이비 부머)	28.9	3.8	67.2

자료: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그림 6. 건강 기능 약화시 선호하는 수발 방법 변화

(단위: %)



자료: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4, 2004, 2008)

인 40~50대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는 소수에 불과하며 약 2/3가 재가서비스나 복지 및 의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자녀 및 가족'은 1998년 33.5%에서 2004년 18.7%, 2008년 11.8%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가 및 사회'는 1994년 22.4%, 1998년

26.2%, 2004년 40.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에는 '국가 및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5.9%포인트),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12.8%포인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 노인층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즉, 신체적 수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노후생활비

표 4. 중년층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식에 대한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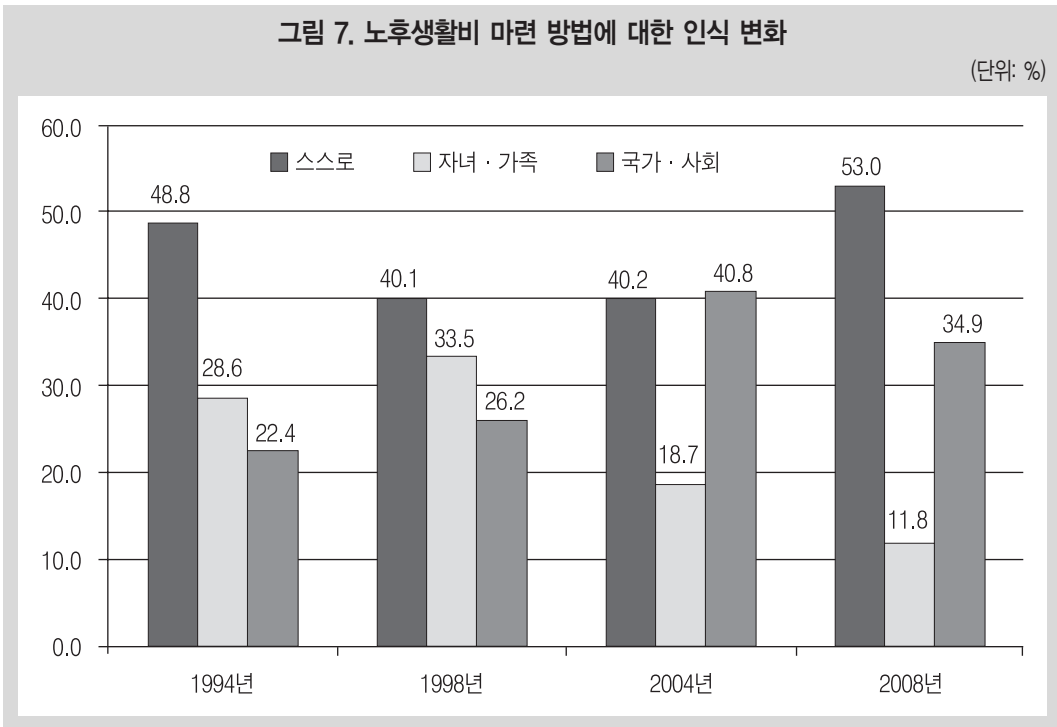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및 가족	연금 등 사회보험	국가
55~59세	49.9	7.7	5.6	25.3	11.6
46~54세(베이비 부머)	49.1	9.5	3.3	28.7	9.3

자료: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그림 7.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마련에 있어서의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아졌으며 본인이나 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독립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기대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고 근거리 거주나 빈번한 접촉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노인에 비하여 미래 노인들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 및 비슷한 가치관의 공유를 중요시 할 것임을 예견케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동거부양이나 빈번한 접촉, 도구적 도움의 제공 등과 같은 노후생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시

되는 의무적·형식적인 관계유지가 중요시 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자발성에 기초한 세대관계가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배우자의 중요성 증대

자녀에 대한 동거 및 도구적 부양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면서 배우자가 노후생활에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주형태나 도구적인 부양 등 각각적인 측면에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의 노인이 될 50대 후반이나 베이비 부머 모두 70% 이상이 노후생활에 있어 배우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즉, 핵

가족화, 빈둥우리 시기의 증가⁷⁾ 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노후생활에 있어 배우자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5. 정책과제

이러한 노년기의 가족변화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존재로서의 자녀의 가치가 저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의 자녀부양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공적인 노후생활 안전망에 대한 기대가 증대하고 있어,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및 공적인 보호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런데 노인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년기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같

표 5. 연령군별 자녀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태도(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정서적 유대	비슷한 가치관	근거리 거주	빈번한 접촉	경제적 교환	도구적 교환	기타	계	(명)
전체	41.7	9.4	9.0	25.7	11.5	1.9	0.8	100.0	(9,281)
24세 이하	57.0	9.1	8.0	17.8	5.7	2.4	-	100.0	(291)
25~34세	47.9	13.8	5.2	22.0	9.6	1.2	0.4	100.0	(1,670)
35~44세	47.2	12.3	6.9	19.9	10.8	2.2	0.7	100.0	(2,366)
45~54세	43.9	9.7	9.3	22.0	12.0	2.4	0.8	100.0	(2,060)
55~64세	34.7	5.1	12.4	30.8	13.5	2.0	1.3	100.0	(1,393)
65~74세	28.6	4.4	11.3	38.4	14.4	1.7	1.1	100.0	(1,095)
75세 이상	21.1	2.3	18.0	46.9	10.0	1.1	0.6	100.0	(406)

자료: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 6. 중년층이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단위: %)

구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기타
55~59세	76.1	13.5	3.9	6.3	0.1
46~54세(베이비 부머)	78.4	10.4	3.7	7.2	0.3

자료: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7) 공세권 외(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경혜 외(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생애주기 예측 및 대응방안.

은 제도 구축과 더불어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세대의 가구유형은 점차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며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시설입소를 늦추고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단독가구, 특히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합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강화, 이들을 위한 민간 서비스(고령친화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지원(예: 식사 서비스, 영양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 등)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배우자가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노년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노년기의 이성교제와 재혼이 지금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노인 5명중 1명은 홀로된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⁸⁾.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가사노동 참여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⁹⁾. 이러한 차이는 노년기에 부부가 단독생활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여성노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노년기의 동등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8) 계명대학교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9) '정경희 외(2009), 노인의 생활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여자노인의 93.3%가 가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 동비율이 59.4%에 불과함.